

일제하 YWCA의 농촌운동

최 만 자(대한YWCA 전 실행위원,
새길기독교사회문화원장)

1. 한국 YWCA 창립과 당시의 여성운동

한국 YWCA는 1922년 '조선여자기독교 청년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다. 기독교 지식인 여성들이 선각적 안목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조선의 여성들을 일깨우고 여성들의 새로운 애국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탄생하였다. 1920년대는 1919년 3·1운동이 좌절되고 일본이 문화정책으로 압제의 형태를 바꾼 상황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애국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출현한 시기였다.

한국 근대역사의 과제는 외세침략에 맞선 자주독립국가 건설과 근대 문명사회 수립, 그리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자유, 해방의 과제들이었다. 당시 출현한 수많은 단체들이 그러한 과제들을 수행하는데 앞장섰다. YWCA는 여성 주체적으로 그러한 과제들을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여성단체들이 대거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19세기 말부터 일기 시작한 개화운동에 자극 받았던 소수 선각자 부인

들이 사회단체를 조직하여 여성교육 및 애국운동을 뒷받침 해 온 그 영향력과 그 힘으로 이룬 3·1운동에의 참여에서 얻게된 운동조직력과 국내외에서 교육받은 여성들의 수의 증가 등이 요인이 되었고 YWCA의 창립도 그 맥락에서 나타났다.

YWCA는 창립 초기에 여성계몽교육과 애국운동의 전개에 주력하였다. 당시 조선의 여성들은 일부 여성사회의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제도와 관습들에 의하여 억압당하고 있었다. 조혼과 내외법, 이혼이나 개가의 불허, 바깥출입조차 자유로이 할 수 없었고 여필종부(女必從夫)나 삼종지도(三從之道)니 하는 유교 도덕이 여성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많은 여성들이 문맹상태에 있었으며 특히 농촌여성들은 다중적 요인들에 의하여 비인간적 상태에 처하여 있었다. YWCA는 이러한 여성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계몽교육운동에 주력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여성개화 운동은 단순하게 자유연애, 여성해방, 자유주의 사상을 외치지는 않았다.

한국여성들의 개화의식은 외세의 침략적 위협아래 주권을 빼앗길 국가위기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여 민족의 자주성과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정신과 밀접히 결합되어있다. 오랫동안 여성을 억압하고 맹종시켜 온 남성지배의 관념과 풍습을 타파하며 자신들의 능력을 신교육을 통해 개발하여 구국운동에 이바지하려는 자아의식 및 민족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한국여성의 개화는 구국운동에의 참여로 시작되었고 여성의 계몽교육이 바로 조국의 독립을 위한 사회적 역할이 된다는 믿음에서 교육 및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점이 개인의식에서 기초하여 여성해방을 주장하는 서구의 여성운동과 한국여성의 개화운동이 차이를 가지는 점이다.

여성계몽과 애국운동이 결합된 초기 YWCA 활동들은 기도, 성경연구, 교양강좌, 문맹퇴치 야학 등의 신앙강화와 계몽교육운동, 금주회 조직, 공창제도 폐지 운동 등의 사회개량적 운동, 축첩, 조혼제도 폐지 등의 여성억압 사회제도 타파운동과 민족경계를 육성하려는 물산장려, 농촌운동 등의 애국운동 등등으로 그 활동영역이 광범위하

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YWCA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위의 내용이 담긴 활동을 전개하였다. 기울어져 가는 한국경제의 생산성을 돕기 위해 국산품을 애용하지는 범 국민적 물산장려 운동은 무명옷, 베옷 입기, 그리고 낭비적 구습과 폐풍을 타파하며 생활을 개량하는 것에 집중하였고, 활동에 편리하고 간편한 의상과 우의 등을 연구, 요리강습, 육아법 교육 등을 통한 삶의 방식과 의식의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적극 전개하였다. 곧 여성을 위한 계몽교육, 생활개선, 억압제도 타파, 그리고 애국운동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2. 한국 YWCA의 농촌운동의 시대적 배경

1) 일제시대 농촌과 여성의 상황

일제시대 조선의 농촌은 일본의 농촌 수탈정책에 의하여 점차 피폐해져 가고 있었다. 1920년대 일제의 농촌수탈 정책은 산미증식계획, 유지면 재배 정책, 그리고 잠업 재배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산미증식 계획은 조선의 쌀 생산량을 증대시켜 일본으로 가져가고 일본의 쌀 값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일본 금융자본의 조선 농촌 침투를 목적하였다. 유지면 정책은 조선의 전통 면을 폐하고 일본기계 방적에 적합한 품종으로 전환하기 위해 유지면 재배를 장려하는 것으로 1919-1928년 10년 계획을 세워 생산을 강화하였다. 잠업은 일본의 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컸던 생사수출을 위해 조선의 전통적 잠사사업을 해체하여 제사원료인 고치생산에 목표를 두고 1919년 조선잠업령을 공포하고 1925년 잠견 100만 석 수축계획을 실시하였다.

이런 정책들에 의해 농촌의 생산, 노동력이 수탈 당했고, 모든 것이 지주중심으로 선동되어 지주는 안정되고 부유하게 되지만 소작이나 빈농은 극심하게 가난하게되고 동족간의 이간이 생겨 농촌은 총체적으로 피폐해졌다. 농민들은 대부분 문맹이 많았고 아무런 세력

도 갖지 못하여 보호받을 길이 없었다.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농토를 잃은 농민들이 화전민이 되고 북간도 등 만주로 가는 이주행렬이 늘어나고 있었다.

여성들은 이렇게 열악한 농촌에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고 살았다. 일제의 수탈에 의해 부과되는 과중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함으로 심신의 고통에 극도로 시달렸다. 전통적 생활방식에 의한 여성노동력의 지나친 소모, 육아와 가사노동의 책임, 그 위에 가부장적 억압 문화에 시달리면서 인간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2) 기독교의 농촌운동

당시 기독교는 근대문명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고, 실제로 의료사업, 교육 등을 통해 서구 문화를 소개하는 통로가 되었으며 한국사회 개혁의 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3·1운동에 기독교인이 대거 참여되었고 계몽교육을 통한 민족의 독립과 구원의식을 교회를 통하여 확산시키기도 하였고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운동에 참여하였다. 개화기에 활동을 한 여성 선각자들의 대부분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 미션계 학교의 교육을 받고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YWCA 창설지도자들도 그 성장과정과 교육이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농촌이 나라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의 가난과 문제는 바로 나라전체의 가난이며 경제문제였다. 따라서 농촌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운동 전개를 우선순위로 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기독교계에 강하게 대두되었다.

1920년대 이후 기독교 세력이 참여한 주요 운동으로는 물산장려운동, 소비절약운동, 농촌운동, 교육계몽운동, 절제운동, 생활개선운동 등이었으며, 교단배경의 청년운동들 곧 감리교 청년단체인 엽윗청년회, 장로교 청년단체인 기독교청년면려회 등도 적극적으로 그러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기독교의 농촌문제를 우위에 두는 관심이 교회

의 90%이상이 농촌교회이며, 그 재원이 농촌에 있기 때문에 농촌경제 악화는 곧 기독교 경제위기가 됨으로 기독교가 농촌우선의 정책을 가진다는 비판적 지적도 있지만, 그러나 여하간 당시는 농촌운동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였고 농촌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은 당시로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1928년에 개최된 예루살렘 국제선교대회를 통해 농촌운동에 대한 영향을 받음으로써 그 이후 기독교세력의 농촌운동이 활발해졌다. 1929년 9월 25일에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 주최로 농촌사업 협동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는 한국교회 최대의 농촌운동단체가 되었다. 거기서 농촌사업지도자 강습소가 설치되고 농사 강습회가 개최되는 등 활발한 농촌운동이 전개되어졌다. 이렇게 기독교 전반의 강력한 농촌운동 전개가 YWCA의 농촌운동의 배경이 되고 있었다.

3. YWCA의 농촌운동

1) 도시중심에서 농촌을 포괄하는 운동으로의 전환 -농촌지도력 양성에 주력

YWCA 농촌운동은 1926년부터 시작되었고 1928년 김활란이 예루살렘 국제선교대회에 다녀온 후 본격화되었다. 1927년 당시만 해도 문맹퇴치나 계몽수준에 불과한 초보적 관심에 지나지 않는 농촌활동을 하였으나 김활란의 두 주간의 덴마크 시찰 경험은 농촌운동을 전환시켰다. 그는 그 시찰에서 크게 감명을 받고 농촌계몽운동의 모범 답안을 거기서 얻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모델을 따라 1928년 YM/YWCA 합동으로 농촌지도자 강습회를 열고 농촌지도자를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농촌 지도자 스스로 농촌을 살려 나가는 그러한 농촌운동으로의 전환의식을 갖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1928년부터는 연합회 안에 농촌부라는 정식기구를 두고 황에스더, 홍은경이 농촌부 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많은 예산을 투입

하는 사업을 해 나갔다. 1928년도 예산지출 안에 의하면 총 예산 880원 중에서 농촌 사업비가 280원으로써 31.8%를 차지하였고 1934년에는 농촌 주부교육에 특별예산을 500원 증액함으로써 전체 640원(약30%)을 이에 할당하고 있다. 이로부터 한국 여성운동은 도시중심의 운동에서 농촌을 포괄하고 우선으로 하는 운동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YWCA 농촌운동은 황애덕이 간사로 일하게 되면서 더 활기를 얻게 된다. 황애덕은 3·1운동 후 결성된 비밀결사조직인 '대한애국부인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였다. 1925년 미국에 가서 1928년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를 받은 후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펜실바니아 주립대 농과에서 5개월 간 특강을 받고 귀국한 인물이었다. 귀국 후 협성여자신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농민이 잘 살아야 한국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많은 학생들이 공감했는데 그 중 최용신과 김노득이 가장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그는 특히 농촌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농촌개혁을 위해서는 여성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당시 농촌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새로운 안목을 가진 그가 간사로 일하면서 더욱 활기를 띄게 되었고 결국 그의 영향을 받은 최용신이 YWCA 파견교사로 수원 샘골에서 농촌운동을 하게 되고 그의 생을 거기에 바치게 되기까지 하였다.

YWCA 농촌운동을 비롯한 당시 기독교 여성들의 농촌운동은 네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보는데, 1)문맹퇴치운동과 민족의식 소생운동이었고(여성야학 활동) 2)농촌여성지도자 양성(농촌부녀지도자양성소설립) 3)다른 기독교 단체들 간의 연대를 통한 농촌계몽운동의 전개, 4)농촌여성들의 생활개선 운동이었다. 조리법, 부엌개선, 배수와 하수도 개선, 도로관리 개선, 시멘트로 우물 만들기 운동, 질병예방운동, 파리, 모기 박멸운동 등 농촌위생사업을 통해 농촌 여성들의 생활을 개선해 나갔다.

이 같은 네 가지 방향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농촌운동은 큰 호응

을 얻었으며 평양 YWCA는 1927년부터 농촌사업을 실시하였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농촌사업은 농촌 부인들을 단순히 돕는 것 만 아니라 참여하는 회원들의 성격과 삶을 기르지게 하였다고 한다. 여러 지방에서 산발적으로 시행하던 농촌사업은 1928년 4월 예루살렘에서 열린 국제선교회의의 제안에 따라 더욱 집중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으로 전개하였다.

YWCA 농촌운동은 특히 농촌주부들의 의식변화에 관심을 집중하였는데 이것은 YWCA로써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고 하겠다. 김활란은 그의 학위 논문에서 “어떠한 농촌 프로그램도 농촌주부들이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완전할 수 없다. 지역사회 문화적인 풍토나 이상은 여성들의 힘에 달려있다. 이들은 생활표준을 변화시킬 열쇠를 갖고 있으며 가족이나 사회적인 관습을 변경시키는데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촌여성지도력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YWCA 연합회에 반영하였고 마침내 1929년 YMCA와 공동으로 농민학교를 열어 4주 과정 주부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 농민학교(농촌지도자 강습학교, Folk School)는 서울서 약 1.5마일 떨어진 근교 신촌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 건물은 약 12.5칸으로 50평 대지에 지어졌다. 이것은 조선과 외국인 친구들의 기부에 의해 1932년 말에 1,000원의 예산으로 지어졌다.

당시 일반인들 사이에서 농촌지도자 훈련이라고 불리운 이 농촌부녀지도자 프로그램은 1934년부터 정규적인 교육과정을 실시하였다. 그 교육의 취지와 목표는 1)농촌주부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넓게 바라보고 봉사할 수 있게 계발하며 2)그들의 영적인 가치를 인식하도록 깨우치고 현재 불만스런 영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 개선에 대하여 다른 주부들과 협동하도록 하는 일 3)마을의 복지향상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 바로잡고, 과학에 의해 미신타파, 생활 수준 향상, 자유롭고 풍요하고 만족한 삶 향하도록 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었다.

1934년 연합회 농촌부 위원 황에스터와 홍은경의 이름으로 공고

된 농촌 주부학교의 입학요령과 교과과정을 보면 18-40세 농촌여성으로 소학교 졸업이상의 한글 읽고 쓸 수 있는 자들 중 지원할 수 있고, 지원자 중 매기마다 20명씩 입학전형위원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고 했다. 이들 전원을 기숙사에 입사시켜 공동 생활하게 하며 교육과정을 마치도록 한다는 것과 입학금 등록금 무료이나 여비와 쌀은 부담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 교육과정은 대개 2월이나 3월 중 4주간 동안 열렸다.

YWCA가 창설한 농촌지도자 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여성들은 계속 YWCA와 관련 맺으며 자기 마을로 돌아가 배운 것을 마을을 위해 활용하였다. 즉, 마을학교에서 가르치며 마을 주부에게 그들의 새로운 경험을 나누는 것 등으로 지도력을 행사하였다. 이 농촌주부훈련 사업이 몇 년까지 계속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다만 1936년까지 계속되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1938년 조선 YWCA 연합회가 일본 YWCA 동맹의 한 지부로 가맹됨에 따라 독자적 활동을 거의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으로 보아 그때 이것이 중단되지 않았나 추측할 뿐이다. 또한 이 농민학교를 통하여 학생들의 마을개선 운동 참여가 대대적으로 시작되었다. 1930년 8개 마을에 학생들이 들어가 마을 개선운동을 위해 봉사하였고 새로운 소식을 널리 전하기 위한 '한국농촌 청소년' 월간지가 정기적으로 간행되었다.

사실 YWCA의 농촌운동은 YMCA와 함께 전개된 부분이 많이 있다. 김활란은 그의 책 『그 빛 속의 작은 생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특기할 사실로써 한국 농촌운동의 개척자는 YMCA와 YWCA 임에 틀림없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오늘날까지 남겨지고 있는 것이다.”

1927년부터는 학생 YM/YWCA 연합으로 하령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해에 120여명이 60여 학교에서 각종 사상문제, 학생문제, 신앙문제 등을 가지고 모였고 표어를 “앞으로 가자”로 하면서 주로 농촌에 기독교의 이상촌을 건설하자는 것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YWCA

가 YMCA와 함께 주력한 사업범위와 내용은 베스트와 존스의 보고서를 통해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계몽과 생활개선 목표 사업이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농촌 보건 위생 : 요리법 개선, 부엌개선, 하수도과 배수시설 개선, 도로개선, 우물파기, 의료사업, 기생충 박멸.
- 농민협동 : 신용조합, 저축조합, 협동구매, 소비협동
- 농민교육 : 더 좋은 어린이 양육 교육, 한글교육, 각종 관청관계허가신청에 따르는 교육, 종자개량에 관한 교육, 비료개량방법, 농기구 개량방법
- 농촌부업장려: 양계, 가축사육, 양잠, 양봉, 작은 작물 재배, 버섯재배, 화초 채소재배, 새끼줄 꼬기, 신발짜기, 바구니 짜기, 자루만들기, 목공, 종기구 만들기 등

사실 YMCA는 1923년부터 농촌실태조사를 시작하는 등 농촌운동을 보다 앞서 전개하였다. YMCA가 농촌사회에 뛰어든 이유와 동기를 1) 지금까지 도시중심으로 활동해온 것을 반성하면서 도시는 자본주의가 발달된 서구사회에서 필요한 것이고 아직 봉건사회 탈피 못한 한국사회에는 맞지 않다는 것과 2) 일반청년의 경향이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3) 국민의 경제파탄을 외면할 수 없는데 일제의 수탈로 인한 농촌의 피폐와 굶주림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체 인구의 약 85%가 농촌에 살고 있는데 그것에 무관심할 수 없으며 농민이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있으므로 농촌운동이 절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한국 YMCA는 이러한 절망적인 시기에 부름을 받고 있다는 고백을 하였다. 농민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협동조직, 보건위생 및 농업개량을 위한 과학적 지식의 보급, 부업지도, 의식주 생활의 개선, 문맹퇴치, 악습폐지 등 주요과제로 실시하였고 많은 부분을 YWCA와 함께 하면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내용으로 그들의 농촌사업을 발전시켜 나갔다.

2) 한국 YWCA의 대표적 농촌운동 - 최용신의 농촌운동

YWCA 농촌사업에 연유하여 널리 알려진 최용신의 헌신적 생애는 민족애에 불탄 시대적 애국여성의 대표적 존재이기도 하다. 1930년, 연합회는 수원구역 감리교 선교사인 밀러로부터 수원부근 일대 농촌 실태 특히 썬골의 어려운 사정을 전해 듣자 즉시 농촌사업 관계자를 현지에 파송하여 시찰케 하였다. 연합회 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썬골을 정하고 1931년 10월 1차로 최용신을 교사로 파견한다. 이를 위한 재정적 후원을 미국 와이 농촌부 간사인 에디가 하였다. 최용신은 1909년 8월 원산에서 태어나 1928년 원산 루씨여고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경성 협성여자신학교에 진학한다. 루씨여고 시절부터 농촌운동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그는 협성여자 신학교 재학중 황해도 수안과 경북 포항에서 가진 농촌실습 통해 농촌사업에 몸바칠 것을 결심하였다.

최용신이 YWCA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29년 협성여자신학교 재학 중으로 YWCA 연합회 제7회 총회에 협성대 YWCA 대표로 참석하게 되면서였다. 그리고 1928년 협성신학교에 입학하면서 당시 농촌사업 지도교육과 교수로 있던 황에스터를 만나게 된 것이 YWCA와 결정적으로 일하게 된 인연이었다. 황에스터는 당시 농촌운동을 주도하던 YM/YWCA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학생들에게 농촌운동에 대한 사명감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있었고 최용신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졸업을 앞둔 1931년 10월 최용신은 수원지방의 밀러 선교사의 요청과 YWCA 지원으로 수원 천곡(썬골)에 파송 받게 된다.

와이 파견교사로 썬골에 온 최용신은 1931년 10월 11일부터 썬골 예배당을 빌려 한글, 산술, 초보의 재봉, 수예, 가사, 노래공부, 성서공부 등 학습을 시작하였다. 1932년 5월 정식으로 강습소 인가를 받았으며 7월에 YMCA 회관에서 열린 제10회 전국대회에서 그동안 썬골 활동을 보고하였다. 문맹을 없애고 농촌지도자를 양성하고 이를 위해 야학, 강습소, 하기 성경학교 등을 통해 농민들 교육사

업을 펼쳤다. 최용신의 농촌계몽운동은 바로 교육에 있었고, 교육에 의 헌신이 샘골이라는 지역에 뿌리내리면서 천곡학원은 지역운동의 핵심이 된다. 최용신은 주로 문맹퇴치운동을 벌였고 이를 통하여 농민 스스로 농촌을 주도하도록 농민들의 실력양성을 위해 헌신을 다 하였다. 홍병선은 '농촌사업의 진의' 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지식있는 자 한두 사람이 촌촌에 중심이 되어서 그 농민들을 지도해주면 된다고 하였다. 그것도 대단히 좋은 말이다. 이 제도는 아직 농민들이 글을 배우고 자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네가 자기의 일을 할 때까지 사용할 임시방법이지 영원한 방법은 못된다. 농부 전부가 깨어서 자기네들 중에서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그들을 무식 몽매하게 두고 지도한다는 것은 아주 불철저한 일이다. 그런 즉 무엇보다 더 그들을 가르쳐야 하겠다.”

최용신의 운동도 그러한 의도였다, 농민 스스로 주인이 되도록 하는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였고 그의 의도를 깨달은 천곡주민과 혼연 일체가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천곡학원을 완성하고 다양한 교육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광란의 전쟁을 극대화하던 일제는 최용신의 농촌운동에 긴장하였고 점차로 강한 탄압을 가하였다. 그런 중에 YWCA 연합회가 매달 해오던 활동 경비 보조를 1933년 10월 그것을 절반으로 줄였고 1934년에는 아주 끊어버렸다. 그는 여러 곳으로 호소하고 간청하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너무 무리하여 마침내 장중첩증으로 고생하다가 1935년 1월 23일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유언대로 천곡강습소 부근에 묻혔다. 연합회는 그를 위한 비석을 세워 YWCA 정신의 실천자, 농촌사업가의 산 표본으로 최용신을 기리고 그의 사업과 정신을 계속하기로 1936년 총회에서 결정한다.

대한여자 기독교 청년회 연합회 회의록철 중 1922-1950년 보관 자료 별지에는 “샘골 여러형제를 두고 어찌 가나, 애처로운 우리 학생들의 전로를 어찌하나, 나는 갈지라도 사랑하는 천곡강습소를 영원히 경영하여 주시오.”라는 붓글씨로 된 그의 유언이 남아있다. ('YWCA 역사 중에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최용신 양의 유언' 에서,

『한국YWCA반백년』 59). 죽으면서도 농촌에의 사랑을 남긴 그의 뜻은 193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농촌지도자 훈련과 함께 연합회의 농촌 프로그램에 반영되었다.

양미강은 최용신의 정신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바닥정신의 구현, 다시 말해 풀뿌리중심주의의 실천이며 그것은 오늘날의 바닥운동 시민사회운동을 향한 모델이 된다고 말한다. 둘째, 최용신의 페미니스트적 실천정신이다. 최용신은 여성으로서 삶에 안주하지 않았다. 여성이면 으레 결혼하고 자식 낳고 남편과 가정을 꾸린다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일반화된 도식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교육받은 여성들의 사회적 책임과 참여를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최용신의 기독교사회운동 정신을 말한다. 그의 농촌운동은 철저히 신앙 위에 기초해 있고, 그에게 신앙은 개인을 넘어 사회를 구원하는, 민족을 구원하는 뜻대라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들이 물질만능주의, 성장주의에 매몰되어 이웃과 사회 문제에 동참하지 않고 자신의 몸집 불리는 데만 관심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그의 기독교 신앙태도가 다시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용신의 농촌운동은 기독교의 민족적 과제수행의 일환이고, 기독교사회운동의 역사적 뿌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

4. 한국YWCA 농촌운동 평가

당시 대부분 기독교 선교 방침과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농촌운동에 중점 두었던 것은 일제 치하 직접적인 독립운동이 불가함으로 가난한 농민의 교육과 농촌사회 경제의 부흥을 통한 점진적 독립을 이룩하자는 데 있었다. 다른 한편 어려움 속에 엮매어 사는 농촌 부녀자들에게 자신감과 자기 인식을 불어넣어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려는 데 있었다. “농민을 계몽하고 농촌여성지도자들을 계발시킨 공은 YWCA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높이 평가 받을만하다” 라고 YWCA 반백년사는 자평하고 있다. YWCA 농촌운

동만 아니라 그 80여 년의 역사에 대하여도 이러한 긍정적이고 높은 점수의 평가를 자타가 내릴 수 있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관점에서 YWCA 농촌운동 및 그 활동 전반은 재평가되어야 하고 YWCA 스스로 자기 성찰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한국역사에서 일제 강점기 동안 민족 근대 역사과제의 두 노선을 말 할 수 있다. 김 덕은 그의 논문에서 지주, 자본가를 주체로 한 자본주의 근대화 노선과 농민, 노동자를 주체로 한 사회주의 운동 노선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근대화 노선을 통한 근대화와 민족해방운동을 펼친 부르주아 민족주의 세력의 주요한 축은 기독교 세력이라고 지적한다. 기독교 세력은 독립협회운동을 계기로 정치세력화하여 대한제국 말기 문화 계몽운동 진영의 일원으로 서구 자본주의 근대관을 소개하고 반봉건 의식과 민족주의 의식을 고취하였다. 1920년대 이후 기독교 세력은 수양동우회, 흥업구락부, YMCA, YWCA, 기독교농촌연구회, 기독교신우회, 적극신앙단, 장로교총회 등을 주요 거점으로 하여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고 한다. 곧 이 노선의 운동이 많은 사회적 공헌을 한 것은 인정하고 높이 평가되지만, 농민, 노동자에 대한 사회주의적 관점이 가지는 측면에 대하여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관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Y운동은 물론 기독교 전반적인 농민에 대한 경제지식 교육, 농사개량 강습, 농민의식 함양, 계몽운동적 성격, 농민의식계발, 훈련차원, 이런 사업은 당시 일제에 의한 경제구조 모순이나 지주소작제 모순과 같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농촌문제를 보지 못하고 농민의 무지와 생활태도에서 농촌문제를 이해하고자 하였던 데서 기인한 것이다. 경제모순의 근본적 구조에 대한 인식은 여성들에게도 중요한 관점이다. 여성문제를 본질적으로 알아야 운동을 올바르게 전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의식에서 볼 때 YMCA의 농촌수양소 강좌와 비교해 보면 YM이 농촌의 실제 소득을 올릴 내용들을 강좌로 구성하는데 비해 YW는 이런 남성 업무에 대한 보조적 역할의 내용들을 강좌로 구

성하고 있음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 구분에 의해 여성들에게 육아와 가사노동의 근대화에 한정하여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성지도력도 근대화 과제를 보다 거시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의 훈련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의 사회의식에서 가지는 한계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보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상황의 개선 목표를 서구여성에게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여성상이나 이상적 환경을 서구사회에 두는 것은 우리와 상황이 많이 다른 점에도 문제가 있고 또 서구의 가부장적 문화의 오류와 한계를 답습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비판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한국 YWCA의 농촌운동, 여성운동은 후일 한국여성운동의 토대를 마련하여 주었으며 농촌여성의 삶의 전환을 이루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시대 시작된 한국 YWCA의 농촌운동 그리고 여성운동은 한국여성의 역사에 여성 삶을 새롭게 하는 한 모델이 되며 그런 점에서 YWCA 농촌운동은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❸

<참고 도서>

『한국 YWCA 반백년』, 대한 YWCA 연합회, 시사문화사, 1976

『한국여성사』,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편, 풀빛, 1992

『한국기독교 여성백년의 발자취』, 이우정, 민중사, 1985

『한국YMCA 운동사(1895-1985)』, 대한YMCA 연맹 엮음, 로출판, 1986

“1920-1930년대 기독교청년면려회 연구”, 김 덕, 『한국기독교와 역사』,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엮음, 2003

“최용신 정신잇기-기독교사회운동의 발전을 위해”, 양미강, 『대한 YWCA 연합회 대학생부 전국대학생여성포럼 자료집』, 2001

『일제시대 한국 기독교 여성운동 연구』, 윤정란,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2000 박사논문,